**환상/ 케네스 해긴**



환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합니다.

환상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환상을 구하던 자가 환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1. 먼저 주님께서 <영적환상, spiritual vision>이라고 부르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도중이라던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보게 되겠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영안에 환상을 갖게 되거나,

또는 그의 영안에 무엇인가를 보는 경우입니다.

낮은 차원의 이런 환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계시는 매우 유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경험이 영적환상의 한 예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서, 영의 세계에서 바울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행0912.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들어와서,

저가 그 위에 저의 손을 얹는 것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시력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위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육신의 눈이 아니고 환상 속에서 본 것입니다.

고넬료도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에 있던 천사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환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환상의 유형입니다.

1. 예수님께서는 두번째로 높은 수준의 환상의 유형은

무아지경에 빠지는 <몽환의 경지, trance>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황홀경, 혼수상태, 의식불명>으로도 불립니다.

행2217. 그리고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왔을 때에 곧,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로 그 동안에, 내가 무아의 경지(비몽사몽)에 있었느니라.

행2218.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보니라,

서두르라,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이는 그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이라.

베드로가 본 보자기도 바로 이 환상입니다

육체적 감각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거나, 기절한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육체적인 감각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1009. 그들이 자기들의 여행을 계속 가던 이튿날에, 그 성(城)에 가까이 다가가니라,

베드로가 여섯째 시각(정오)경에 기도하러 옥상(屋上) 위로 올라가니라.

행1010. 그리고 그가 매우 시장하게 되니, 먹고 싶어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준비하던 동안에, 그가 무아의 경지(비몽사몽)에 빠지니라.

행1011.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마치 네 모서리가 매인 굉장한 얇은 판(쉬트) 같은

어떤 그릇이 자기 위로 내려와, 땅에로 내려지는 것을 보니라.

1. 가장 높은 수준의 유형으로 <열린환상, open vision>이라고 불립니다.

육체적 감각이 정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눈이 닫히지도 않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을 모두 소유한 채로 영의 세계를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병실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본 환상이 이와 같은 종류의 환상입니다.

열린 환상가운데 나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Tags

영의 세계